



『안녕 — 선생님』

청소년 독서 지도안(9차시)



만든 이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안녕 선생님』 독서 지도안은 생각정원 출판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3347932>)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책 소개

“얼마 전까지 칠판 앞에서 있던 선생님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괴물 부모의 탄생』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저자

김현수 명지병원 전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 강력 추천!

아픔을 딛고 이해를 공유하는 사회 나아가길 응원하는 네 편의 이야기!

이 책은 ‘선생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공통 소재로, 이를 둘러싼 네 인물(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사이버 레커)의 서사를 풀어내는 새로운 형식의 문학 작품집입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나아가 우리 사회가 함께 ‘학교 공동체’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책으로, 학생과 선생님의 권리가 모두 균형 있게 존중될 때, 나아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을 때 비로소 학교의 안녕을 마주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나인지도 모른다.”

- 이학준(학생)

나를 괴롭히는 학급 친구 박은비에 맞서기 위해 저녁에 몰래 찾은 학교 그곳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대신 반납해 달라며 건네준 책 한 권과 희미하지만 따뜻했던 미소. 그게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다. 선생님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진 학교, 그렇지만 정작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사건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지금, 내가 선생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연극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 강수빈(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학부모)

학교폭력에서 가해 학생의 변호를 맡아 가해자에게 겨누질 비난의 화살을 선생님에게 돌린 것.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학창시절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선생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들 이준이 선생님의 죽음 소식을 전해온 날부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잔뜩 움츠려있던 선생님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선생님의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 학생을 만나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다면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까?

“고마웠어요. 언제까지나 함께할게요.”

- 노수미(동료 교사)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 있던 동료 선생님이 떠났다. 충격받을 학생들을 위해 하루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교장, 교감 선생님.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애도의 기간은 필요한 게 아닐까. 학생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환장할 일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죄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 강범준(사이버 레커)

돈을 위해 시작한 사이버 레커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취재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 가짜 뉴스를 영상을 제작하면 섭섭지 않을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달콤한 제안까지 들어오니 말이다.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한창 고민하던 중 한 메일이 눈에 들어온다. ‘이미아 선생님 사건 관련하여 제보를 드립니다.’ 이 제보엔 또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

차례 및 독서 계획

단계	차시	활동 내용	쪽수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 표지로 이야기 추측하기	4
읽는 중 활동	2차시	「알맞은 진실」	5
	3차시	「아무도 듣지 않는 비밀에 관하여」	8
	4차시	「교문의 근조 화환」	11
	5차시	「모두의 거짓말」	14
	읽은 후 활동	6차시	모두의 이야기 표현하기
연계 활동	7차시	이별에 인사하는 방법	18
	8차시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9
	9차시	『안녕 선생님』 책 포스터 만들기	24

1차시 · 책 표지로 이야기 추측하기

1.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살펴보고 『안녕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상상해봅시다.



① 앞표지를 살펴보고, 이야기에 대해 추측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

.....

.....

.....

.....



② 뒤표지를 살펴보고, 이야기에 대해 추측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

.....

.....

.....

.....

③ ‘안녕’은 본래 어떤 뜻을 담고 있을지 사전을 찾아봅시다.

.....

.....

.....

④ 『안녕 선생님』에서 제목에 적혀있는 ‘안녕’은 위에 적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자 사용한 것일까요?

.....

.....

1. 소제목 ‘알맞은 진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

.....

2. 학준이는 할아버지의 죽음과 이미아 선생님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왜 다른 감정이 느껴진 걸까요?

가슴께가 빠근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마음 아파본 적이 있나? 없는 것 같다. 왕래가 뜸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진짜 아무렇지 않았으니까.

그때, 불현듯 떠오른 단어에 밀려온 섬찟함이 슬픔을 훑 밀어냈다.

3. 아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우리의 목소리가 어둑한 복도 끝으로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 나갔다. 선생님과 나만 서 있는 공간은 그 파동이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사이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이 조금 전 어떤 말을 하려다가 차마 꺼내지 못하고 삼켜버렸다는 걸. 한참 어린 나에게, 아니 이 학년 공식 짝파인 나에게 터놓고 싶은 말이 있지만, 꼭 참았다는 말이다.

(중략)

“학준이는 참 예쁜 아이야. 가능성도 무한하고. 그거 잊지 마.”

“네? 네. 감, 감사합니다.”

여자에도 아닌데 예쁘다니.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어른에게 언제 이런 말을 들어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솔직히 나도 내가 그런 애가 아니란 걸 알지만, 무척 고마웠다. 가슴이 벅차 오르기까지 했다. 그냥 말 한마디일 뿐인데.

① 이미아 선생님은 학준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

.....

.....

읽고 난 뒤 생각해봅시다

1. 소제목 '아무도 듣지 않는 비밀에 대하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안녕 선생님』의 두 번째 이야기, 「아무도 듣지 않는 비밀에 대하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아랫글을 다시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강수빈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미아 선생은 잘못이 없다는 걸.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담임 선생님이 희생양이 되는 건 이미 빈번한 일이었다. 담임 선생님 탓을 하는 게 학교로서도, 변호사로서도, 피해자나 가해자로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어른이니까, 담임 선생님이니까 잘 견딜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강수빈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이미아 선생의 옛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이 그 회의실에서 이미아 선생에게 화살을 돌릴 때 당황하던 눈빛이 머릿속에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왜 이제 그녀의 얼굴이 새삼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질문들이 강수빈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학교로 부임했던 걸까? 혹시 처음 담임을 맡았던 걸까? 그녀를 내가 지나치게 몰아세운 걸까? 강수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

① 이미아 선생님의 부고(소식)를 듣고 강수빈은 왜 생각이 많아졌을까요?

② 이미아 선생님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빈 변호사는 왜 회의실에서 이미아 선생님에게 화살을 돌렸나요?

③ 혼란스러운 강수빈 변호사가 사무실을 나온 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빈칸 ㉠에 해당하는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찾아봅시다.)

3. 이미아 선생님의 부고(소식)를 듣고 난 뒤, 강수빈 변호사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4. 학준이는 할아버지의 죽음과 이미아 선생님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왜 다른 감정이 느껴진 걸까요?

열다섯 살의 강수빈은 날마다 학교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상상을 했다. 지금도 강수빈은 가끔 그때를 떠올린다. 그때 옥상에서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던 강수빈은 삼십 년 후의 지금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미아 선생도 그날 그런 기분이었을까? 강수빈은 그날 명함을 전달해주지 않은 것을 수없이 후회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것을 후회했다. 승진을 욕심낸 것을 후회했다. 어쩌면 자신이 이 연극에서의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이미아 선생에게도 삼십 년 후가 있었을 것이다. 사십 년 후 역시.

5. **내가 만드는 책 속 질문**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발췌하여 적어보고, 해당 부분을 읽으며 든 생각과 질문을 적어봅시다.

4차시 · 「교문의 근조 화환」

읽으며 정리해봅시다

노수미 선생님의 시점에서 중요 사건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봅시다.

페이지	중요 사건 요약	노수미의 시점과 생각

읽고 난 뒤 생각해봅시다

1. 소제목 '교문의 근조 화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미아 쌤이 붙인 불길을
절대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아 쌤이
저를 구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반 교실을 이미아 선생님의 추모 공간으로 꾸미며,
김희준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포스트잇에 편지를 써 붙입니다.
'미아 쌤이 저를 구했어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 『안녕 선생님』의 세 번째 이야기, 「교문의 근조 화환」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아래의 글을 다시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교장은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아이들이 동요할 만한 추모 공간을 만들기를 꺼렸지만, 교감은 누구보다 먼저 국화를 이 반 교실에 사다 놓았다.

“교감 선생님 따님 생각이 나신 거군요?”

“무슨 소립니다?”

“이 반 교실에 국화를 사다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쫓아내고요.”

“아, 그거…….”

교감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저 교감의 의무로 갖다 놓았는데 점점 딸 생각이 났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과 괴로워 하는 젊은 선생님들을 보고 우리 딸이 미래에 학생들을 가르칠 학교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① 교감 선생님은 왜 누구보다도 먼저 국화를 이 반 교실에 가져다 두었나요?

5차시 · 「모두의 거짓말」

읽으며 정리해봅시다

강범준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봅시다.

페이지	중요 사건 요약	강범준의 시점과 생각

읽고 난 뒤 생각해봅시다

1. 소제목 '모두의 거짓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안녕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 「모두의 거짓말」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아랫글을 다시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그렇긴 하지. <라쇼몽>같네.”

“<라쇼몽>?”

“옛날 일본 영화야.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조사를 하는데 목격자들의 증언이 다 달라. 심지어 당사자조차 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

강범준이 고개를 젓자 이성환이 대답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모두가 거짓말을 한 거야.”

“각자의 사정이라…… 이번 사건에도 우리가 모르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네.”

“아무래도 그렇겠지? 근데 우린 기로에 서 있는 거지. 진짜 숨겨진 사정을 밝혀볼 것이냐 아니면 다섯 장을 받고……”

“차차 생각해보자고. 선택은 우리 몫이니까. 나갔다 올게.”

① '사정'은 무슨 뜻일까요?

② 각 인물은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6차시 · 모두의 이야기 표현하기

『안녕 선생님』은 4명 인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각 인물은 어떤 사건을 함께 하고 있었는지,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마인드 맵으로 정리해봅시다.



7차시 · 이별에 인사하는 방법

『안녕 선생님』은 가까웠던 어떤 이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은 늘 마음이 아리고 슬픕니다. 이별의 말을 직접 건네지 못하게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2. 추모란 무엇인가요?

3. 월령 중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아 선생님을 어떻게 추모하였나요?

4. 영상을 보고,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추모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https://youtu.be/k-VeQynu60?si=5OY2RP-fNAK1q_zc



① 우리 사회에서 추모의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② 요즘은 왜 ‘포스트잇’을 추모의 표현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8차시 ·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1. 『안녕 선생님』에는 학생과 선생님부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2. 아래 활동지에 ‘나’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의 관계를 정리해봅시다.

① 나를 둘러싼 다양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가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②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③ 학교 밖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3.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사례를 담은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고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 1번



경기도 김포 A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사 온 지 1년 되어갑니다. 이사 오는 무렵 아래층인 1층에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학군 좋다는 동네로 소문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가 많은 편이고 유치원이 이사 온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피가 말립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등하교 시간에 쿵쿵거리는 거짚이야,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전 오후 잠깐도 아니고 매번 쿵 쿵! 하고 물건 떨어지는 소리, 악기를 두드리는 것인지 음악 소리와 함께 매번 쿵!쿵! 거리는 소음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1층의 소리가 2층까지 올라오나 싶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서 유치원에 방문했습니다.

“소음이 위로 많이 올라온다. 어린이집이라 아이들이라 이해는 하지만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고 계신 것인지,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정말 달

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한두 번 뛰는 걸로 이르는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이건 아이들이 뛰는 거야’라고 세뇌하지 않으면 괴로울 정도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바로 옆집과 이야기하다가 소음을 떠나 이제 진동까지 느껴진다고 하소연을 하다가 또 쿵쿵 거리는 소음과 심지어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유치원 내부를 겨우 봤습니다. 안에서 맨 바닥에 쿵쿵이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하원 시간에 맞춰 찾아가, “실내에서 쿵쿵이 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하니, “저건 쿵쿵이가 아니라 점핑 신발이라며 소음이 나지 않는 것”이라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제가 “용어 알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인지 소음과 진동이 올린다”고 했더니 원장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라 매트를 사용하면 미끄러지고 제어가 안 된다”는 이상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한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읽기 자료 1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320/124058873/1>

○ 읽기 자료 2번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그동안 층간소음에 1년 넘게 시달렸습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두통, 신경 예민, 우울증 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자그마한 실마리를 찾아 이제는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생활을 황폐하게 만든 건 저희 윗집이었습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물건 끄는 소리, 아이 뛰는 소리, 드르르 미닫이 문 닫히는 소리, 랑 하고 여닫이 문 닫히는 소리, 발망치 소리, 소리지는 소리 등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소리는 발망치 소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반복적으로 들

리는 쿵쿵 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참고 참다가 한 달에 한번 관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위층에 이야기 잘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도 소리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에서 전화를 한 날이면, 오히려 쿵하고 물건 떨어트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는 말할 것도 없이 심하게 들렸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귀트임’이 시작됐는지 쿵쿵대고, 쿵 하고 물건 떨어트리는 소리까지 하루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민원을 넣기도 수십 번이고 결국 위층 이웃이 우리 집을 찾아왔고 큰 소리로 싸우기도 엄청 싸웠습니다. 매번 본인들은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사람 피 말리게 하냐고 큰소리치는데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한 하루는 쿵쿵 소음이 하도 느껴져서 관리소에 “위층 제발 조용히 좀 걸어 달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관리소에서는 “위층에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윗집에 사람이 없는데 나만 소리를 들었다는 건가?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우연히 윗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정신병자인가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관리소장님을 찾아뵙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리소장님께 위층 소음만이 아닐 수 있다면서 인터넷으로 신문에 실린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날 소리 들릴 때 집안의 모든 소음(전자기기)을 차단하고 천장 가까이 벽면에 손을 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동이나 울림은 없었고 쿵쿵 소리만 느껴지는 것이 아 윗집의 윗집 소음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도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영문도 모르고 괴로움을 당한 윗집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윗집과 대화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에서 윗집을 만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도 사실 층간소음이 느껴지긴 했지만, 최근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신경 쓰지 못했고, “소음이 아래층까지 전해지는지 놀랐다”라며 “이제라도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서로 오해를 잘 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위층의 위층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구마와 과일을 사 들고 위층의 위층에 갔습니다. “쿵쿵 뛰는 소음이 한 세대 건너서도 들린다”고 말하고 “밤에는 쿵쿵 소리를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지를 함께 건넸습니다. 위층에도 과일과 함



께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쪽지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층의 위층 아주머니가 직접 내려와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늘 조심한다고 하던 게 조금 방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더 어쩔 줄 몰라서 서로 조심하자며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위층도 더불어 본인들도 더욱 조심하겠다고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되찾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층간소음 기사 덕분에 층간소음의 원인이라도 찾고 이웃끼리 더욱 감정 상하는 일을 면하고 무엇보다 층간소음이 줄어들어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위층이지 않을까 싶었던 점에 반성하고 있으며 진솔하게 사과했더니 이해해주는 위층과 또 조심하겠다고 바로 시정하는 위층, 위위층 이웃분들에게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일을 계기로 층간소음 정도도 낮아지고, 저 역시 귀트임이 사라졌나 싶은 정도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 읽기 자료 2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08/122075536/1>

① 읽기 자료 1번에서 나타난 갈등을 정리해보세요.

② 읽기 자료 2번에서 나타난 갈등을 정리해보세요.

③ 읽기 자료 1번의 사례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읽기 자료 2번의 사례는 문제가 해결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사 읽기 자료 2번에서의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위의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혹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② 위에 적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혹은 태도’를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적어보고, 직접 실천해봅시다.

9차시 · 『안녕 선생님』 책 포스터 만들기

『안녕 선생님』을 읽고 난 뒤,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책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영화 포스터는 영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과 분위기를 바탕으로 관중들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우리가 만들 책 포스터는 책의 주제와 사건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아래의 참고 자료를 살펴보고 『안녕, 선생님』의 책 포스터를 함께 제작해봅시다.

★ 포스터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면 위에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광고물

★ 포스터의 종류

포스터는 전달 내용(정보)에 따라 정치 포스터, 사회 포스터, 문화 포스터, 상업 포스터, 장식 포스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 포스터는 정치 선전과 관련되는 내용이며, 사회 포스터는 사회 공공 캠페인이나 공익 광고, 계몽 등을 위한 포스터이다. 문화 포스터는 문화 예술에 관한 포스터, 스포츠 포스터는 스포츠와 관련된 포스터이며, 상업 포스터는 상품이나 기업을 선전하는 포스터이다.

한편 포스터는 주제에 따라 전쟁 포스터, 전시회 포스터, 연극 영화 포스터 등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포스터는 광고나 선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시각 예술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포스터의 제작자들은 그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예술적인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포스터”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0161>